

Coach leader

2022.JUNE



발행인(박정근 원장) 칼럼

머리말

호서대 교수로서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은 나는 아내, 막내딸과 함께 6개월 동안(2014.2.27.-8.15) 미국 스포츠여행을 했다. 메이저리그(MLB)를 중심으로 프로스포츠는 물론 대학스포츠, 아마추어와 생활스포츠, 스포츠시설, 스포츠산업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미국 스포츠 현황을 꼼꼼히 살펴 보았다. 여행을 하면서 작성한 기사를 스포츠큐(www.sportsq.co.kr)에 40회 동안 연재를 했다.

초반 여행은 MLB 스프링캠프 여행과 휴스턴 근처지역 여행을 주로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텍사스주 휴스턴-애리조나주 글렌데일-텍사스주 샌안토니오-앨버스턴-오스틴대-달라스 지역을 여행했다.

두 번째 여행은 55일간 미국의 중부 및 동부, 캐나다지역을 여행하는 강행군이었다.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드디어 여행을 시작했다. 집사람, 처형, 막내딸 여자 세 분을 모시고(?) 운전사 역할을 하며 약 두 달간 여행길에 올랐다.

나는 운전을 하고 집사람은 호텔예약 및 식사를 담당하고, 막내딸은 내비게이션 맡았으며, 처형은 집사람과 함께 식사를 담당했다. 환상의 콤비 4명이 오전 10시10분에 드디어 휴스턴을 출발했다. 55일간 일정은 아래와 같다.

휴스턴 출발-루이지애나주 뉴올리안즈-앨라배마주-플로리다주 탬파베이(FSU)-게인즈빌(UF)-올랜도(디즈니월드)-데이토나비치-세인트 오거스틴-잭슨빌-조지아주 사바나-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분홀-머틀비치-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버지니아주 체서피크-노퍽 타이저-워싱턴디시-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즈-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뉴저지주 애틀란틱시티-뉴욕주 뉴욕메츠 시티필드-코네티컷주 예일대-로드 아일랜드주 뉴포트-매사추세츠주 보스턴(레드삭스)-MIT-하버드대-캐나다 퀘벡-몬트리올-오타와-토론토(블루제이스 로저스센터)-나이가라폭포-미시간주 이스트 랜싱(MSU)-칼라마주(WMU)-일리노이 시카고-스프링필드(링컨생가)-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 부시 스타디움)-테네시주 멤피스(엘비스프레슬리 고향)-아칸소주 리틀록(빌클린턴 고향)-텍사카나-텍사스주 휴스턴.

55일간의 여행을 포함해 미국 안식년 6개월 동안 약 3만 마일 여정을 마쳤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미국 독립야구단 경기를 관전하면서 귀국 후 국내 독립야구단 창단에 대한 구상도 했다. 미국에서 6개월은 야구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다.

부족한 글이나마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출판을 맡아주신 아이새롬 이형권 대표, 그리고 황형범 팀장, 유지웅 인턴, 김성권, 안연화 호서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스포츠큐 류수근국장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2016. 8. 호서대에서

박정근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박정근 지음



'훈련 메카' 투손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를 가다

지난달 13일 애리조나에서 휴스턴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투손 시내 고속도로에 접어들 무렵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Kino Sports Complex)'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자석에 끌리 듯 자동차 핸들을 돌려 그곳으로 향했다.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는 나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곳이다. 2011년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 2011년 3월 21일부터 6개월간 연수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부족해서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 대신 캘리포니아에서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 도착한 나는 직원에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시설 투어를 했다.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는 7개 야구장, 1개 메인 스타디움, 클럽하우스 등 야구와 관련된 모든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사진은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 야구장 전경

●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논의하다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는 키노 메모리얼 스타디움이 포함된 곳으로 야구와 소프트볼 대학팀의 스프링캠프장으로 유명하다. 이곳 기념관에는 한국전 참전용사와 관련된 사진들이 전시돼 있어서 반가웠다. 이전에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스프링캠프 트레이닝 훈련지로 사용했다.

이곳에는 7개 야구장, 1개 메인 스타디움, 실내 및 실외 배팅연습장(케이지), 몇 개의 볼펜연습장, 2개의 인필드 연습장, 클럽하우스 1개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또한 한 곳에 야구장 10면이 모여 있어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주간 및 야간 경기가 모두 가능하다. 겨울에도 미국 전역에서 날씨가 좋은 편에 속해 동계훈련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경기를 마치고 나온 마운트마티 대학 선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소속팀은 7-6으로 패배했다고 말했다

내가 이곳을 찾았을 때 투손 인비테이셔널 게임스(TIG, Tucson Invitational Games)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 대회에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디비전2와 디비전3 또는 미국대학경기협회(NAIA) 팀, 미국전문대스포츠협회(NJCAA) 팀 등 대학 야구팀들이 참가하고 있다.

우리가 TV를 통해 자주 접하는 NCAA 농구 경기는 대부분 디비전1에 속한 큰 대학 팀들이 참가한다. 하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팀들은 디비전2와 3, 그리고 NAIA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학 팀들이 소속돼 있다. NCAA 디비전 1, 2, 3 분류는 보통 학교 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NAIA 역시 규모가 작은 대학들끼리 만든 협회다. 우리가 찾은 날은 대학야구팀 토너먼트가 있어 경기를 둘러봤다. 이 토너먼트를 관람하는 데는 5달러(약 5200원)정도가 소요된다.

● 전국 400여개 대학팀 참가 ‘소프트볼 메카’

2002년 14개 소프트볼 대학 팀이 참가했던 TIG는 현재 전국 400여개 대학 팀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성장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TIG에 야구가 포함돼 대회를 치르고 있다. TIG는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호텔 및 콘도 할인, 자동차 할인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숙박 스케줄을 체크해 관리해준다.

TIG는 각 대학마다 스프링캠프에 참가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에 맞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참고로 소프트볼 경기는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경기하지 않고 링컨파크에 있는 소프트볼장의 8곳에서 경기를 치른다. 링컨파크는 사막 오아시스의 19에이커 넓이에 소프트볼장, 축구장, 야구장, 커뮤니티칼리지, 골프장이 한 곳에 모여 있다.

특히 이곳은 한국에서 동계 훈련 메카로 유명한 남해구장이나 강진베이스볼파크와 유사하지만 시설 크기나 참가하는 팀의 규모가 훨씬 크다.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주립대(샌버나디노), 일리노이 공대 등 68개 팀이 참가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구장, '미닛메이드 파크'에 서다

휴스턴까지 왔는데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구장을 방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지난달 21일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구장을 찾았다. 경기장은 시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구장을 찾기 며칠 전 직접 전화를 걸어 방문요청을 문의하려 했지만 관계자와 통화하기가 어려워 무작정 찾아가기로 했다. 구단 프런트를 찾아 한국에서 온 목적을 설명하고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더니 곧바로 인터내셔널스카우트 담당자를 연결시켜줬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장은 시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담당자가 다른 미팅으로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함을 남기고 가면 연락 주겠다고 했다. 미국은 약속이 에티켓인 문화라곤 하지만 한국이라는 먼 곳에서 찾아 왔는데 만나주지 않으니 다소 섭섭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명함을 남겨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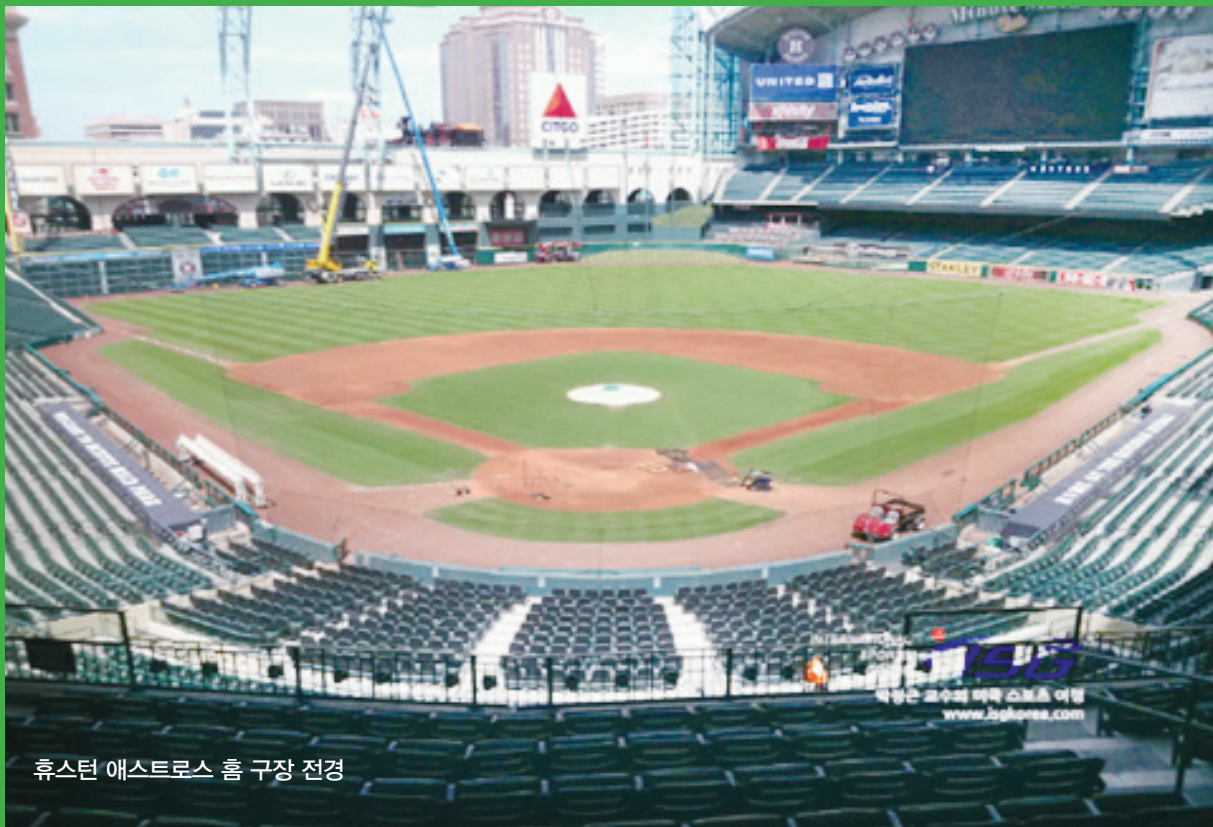
마침 돔구장 투어를 하는 시간이라 이왕 온 김에 돔구장 투어를 하기로 했다. 같이 구장을 찾았던 아내와 딸은 식당에 있겠다고 해서 결국 나 혼자 투어를 시작했다. 입장료는 11달러(1만1000원)다. 노인과 군인은 9

달러(9300원), 어린이는 7달러(7200원)다. 이번 스타디움 투어에는 나를 포함해 미국 뉴저지에서 온 사람과 캐나다인 2명, 영국인 4명 등 총 9명이 함께 했다.

스타디움 투어는 명랑한 흑인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사진도 찍는 등 경기장 이곳저곳을 돌아보니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스타디움 투어 기간은 4월에서 9월까지 5개월 정도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 12시, 2시 3회가 진행되며 토요일은 10시, 12시에 투어를 할 수 있다. 10월부터 3월까지의 비시즌에는 매주 월~토요일 10시, 12시 두 번 진행한다. 더불어 선수들의 배팅 훈련 모습을 참관할 수 있는 투어는 45달러(4만6000원), 클럽하우스 투어는 30달러(3만1000원) 등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입구에 눈에 띄는 돌들이 많았는데 모두 벨기에에서 수입한 돌이라고 가이드는 설명했다. 가이드를 따라 경기장, 대규모 특별석, 식당, 미디어 다이닝룸, 기록실, 중계방송실, 기념품 매장 등을 방문했다. 구장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 점이 특이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 구장 전경

● ——— 휴스턴을 상징하는 메이저리그 구단 ‘휴스턴 애스트로스’

휴스턴에 메이저리그 팀이 창단된 것은 1962년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름인 ‘애스트로스’를 사용한 것은 1965년부터다. 별, 우주를 뜻하는 애스트로스는 미항공우주국(NASA)이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또한 홈구장의 명칭은 구단 지분을 가진 음료회사인 미닛 메이드 사(코카콜라의 자회사로 오렌지주스 회사)가 네이밍 계약을 체결해 미닛메이드 파크로 불리고 있다. 총 4만1000명의 수용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개폐식 돐 구장이다.

평소 날씨가 무더운 이 지역의 특성상 날씨가 26.7℃ 이상인 날에는 천장(루퍼)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준다. 이 구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훌륭한 시설을 갖춘 구장으로 손꼽힐 정도다.

한 쪽 벽면에는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선수사진이 모두 새겨져 있다. 단 1994년 선수 사진만 모두 빠져 있었다. 이유는 1994년에 MLB 노조 파업으로 인해 메이저리그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스타디움 투어를 통해 구장 곳곳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명량한 흑인 가이드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나는 스타디움 투어 후 흑인 가이드와 기념 촬영을 했다

대규모 특별석은 최고급 시설로 되어 있다. 고급 샴페인도 진열해 놓았고, 식당은 고급 다이닝 클럽 패드가 깔려 있어 다른 곳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휴스턴 구단은 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선 좌익수 뒤쪽으로 보이는 증기기관차가 인상적이었다. 이는 휴스턴 선수가 홈런을 치거나 게임을 이기면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MLB 30개 구단 중 6번째로 대형 화면을 자랑한다.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주 찾던 구장으로 유명한 이곳은 매일 잔디 관리를 통해 최상의 환경을 추구한다.

중견수 타워 쪽은 다른 구장에 비해 굉장히 길고 약간 경사가 저 있어 홈런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기이한 외야 형태로 인해 다른 팀 중견들이 수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원정팀들이 불리한 구장으로 손꼽힐 정도다.

● — 미닛메이드의 자랑거리 ‘영구결번 야구공’

휴스턴 홈구장 전광판 위쪽에는 영구 결번된 번호가 적힌 야구공 10개가 걸려 있다. 왼쪽에 6개, 오른쪽에 4개다. 이는 휴스턴의 역사를 함께 하는 슈퍼스타들의 등번호다. 영구결번은 밑 왼쪽부터 32, 40, 25, 33, 34, 42, 49, 24, 5, 7 순으로 배치돼 있다.

- 32 짐 엠티릭츠 : 휴스턴에서 통산 9승5패를 기록한 투수로 당시 33세의 나이로 휴스턴에서 활약하다 암으로 사망해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영구결번했다.
- 40 돈 윌슨 : 통산 104승을 올리며 구단 최고의 투수에 오를 수 있었지만 29세에 돌연 자살했다.
- 25 호세 크루즈 : 휴스턴 대표 외야수, 통산 2281안타를 기록했다.
- 33 마이크 스콧 : 80년대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 34 놀란 라이언 : 70~80년대 대표 강속구 투수. 라이언은 에인절스, 휴스턴, 텍사스 등 메이저리그 3팀에서 모두 영구결번된 전설적인 선수다.
- 42 재키 로빈슨 : 1945년 니그로 아메리칸리그에서 입단한 후 브루클린 다저스(LA 다저스의 전신)로 적을 옮겼다. 이후 28세인 1947년 4월 15일 흑인 최초 메이저리그 데뷔 경기를 치렀고 1947년에는 메이저리그 루키로 선정됐다. 1962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특히 메이저리그 데뷔 50주년인 1997년 4월 15일에는 로빈슨의 등번호 42번이 메이저리그 전 구단에 영구결번되는 행사를 가졌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매년 4월 재키 로빈슨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MLB 선수들은 항상 42번 유니폼을 입는다. 그리고 2004년부터 매년 4월 15일을 ‘재키 로빈슨 데이’로 지정했다.
- 49 래리 디어커 : 휴스턴 투수로 활약했다. 최전성기에는 감독으로서 팀의 지구 4회 우승에 큰 공헌을 함. 선수 은퇴 이후 애스트로스 전담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 24 지미 윈 : 통산기록은 평범했지만 1960년대 휴스턴을 지킨 공로가 인정돼 영구결번 됐다.
- 5 제프 배그웰 : 휴스턴 대표 1루수로 홈런(449개), 타점(1529개) 기록, 통산 30~30을 두 번이나 기록했다.
- 7 크레이그 비지오 : 포수뿐만 아니라 2루수, 중견수 등 3가지 포지션에서 올스타에 선정된 선수다. 통산 3060안타를 기록했고 몸에 맞는 공이 통산 2위에 랭크됐다. 그는 휴스턴에서만 20년을 뛴 최고 스타다.

야구가 생활화된 갤버스턴, 운동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지난달 22일 나는 갤버스턴으로 향했다. 휴스턴 도심에서 남쪽으로 30분 정도 달려가면 갤버스턴이 나온다. 해안관광도시인 이곳은 32마일 정도의 해안가(비치)가 인상적인 도시다.

이 도시는 1900년 9월 8일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폐허가 됐다. 당시 6000명 이상이 사망하며 대재앙의 충격에 빠졌다. 이 도시는 허리케인이 발생한 이후 2년 동안 10마일 길이의 제방을 쌓았고 이것이 바로 씨월 스트리트(seawall street)다. 지금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전했다.

●——— 현직 변호사,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다

이곳이 더 놀라웠던 이유는 이 조그마한 도시에 야구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곳을 돌아볼 때도 야구장에서 여자들은 소프트볼 경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구장에서는 남자 어린이들이 배팅 연습을 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들이 연습하고 있는 곳에는 키 큰 흑인남자가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발길이 옮겨졌다. 그리고 옆에 구경하던 사람에게 “학부형이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며 “아들이 3개월 동안 130달러를 내고 야구를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갤버스턴의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손쉽게 야구를 배울 수 있다

코치의 실제 직업은 변호사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전직 야구, 농구선수 출신으로 무료봉사(볼런티어)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피칭머신에서 볼을 던져주는 여자 코치가 부인이라고 말했다.

코치를 직접 만나 한국에서 온 목적을 설명한 나는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았다. 정말 변호사 명함이었다. 그는 아들이 야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신수가 소속된 텍사스 레인저스 팀의 마이너리그 선수라고 했다. 현직 변호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신기한데 부부가 함께 가르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다.

● ———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스포츠 선진국

한국에서도 스타출신 야구인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앞으로 재능기부나 무료봉사를 좀 더 체계화하고 활성화시켜 야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이 쉽게 야구를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수출신이나 야구관계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면 유소년 야구 저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야구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저변 확대다. 어린이들이 손쉽게 야구를 배우고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미국 유학당시 느꼈고 지금도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국선수들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



변호사 코치의 부인이 피칭머신을 이용해 공을 던져주며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선수가 대학에 선발된 이후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성적이 뒤처지면 학업성적이 평균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선수자격을 박탈한다. 스탠포드 대학 학생이었던 미셸 위가 LPGA투어 출전 기간 중에도 과제를 하던 했던 장면은 유명한 일화다.

이것이 스포츠선진국의 모습이다.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 인내력과 희생, 리더십 등이 길러진다. 이는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운동선수 출신을 선호한다.

실제로 선진국에는 운동선수 출신의 변호사, 의사, 교수,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히 많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도 선수 출신이 많다. 포드 대통령은 미시간대 미식축구 선수였고 예일대에서는 미식축구 감독을 역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프로선수급 골프 실력을 갖췄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수준급의 농구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류현진, 윤석민 에이전트로 유명한 스캇 보라스는 메이저리그 선수 출신이면서 변호사다. 미국프로농구



(NBA) 시카고 불스의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은 노던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LA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은 미시간주립 대학에서 NCAA 대학평점 기준 C학점(2.0)이상을 받았다.

데이비드 로빈슨의 경우는 해군사관학교 입학 시 SAT 점수가 거의 만점 받을 정도의 수재로 해군제독이라고 불렸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초·중·고·대(NCAA)를 거치면서 학업과 운동을 강조하는 미국 교육제도 때문이다. 공부와 운동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한국에서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지은이 박정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체육행정학 석사, 스포츠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체육 전공 교수, 스포츠과학대학원 축구학과와 야구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교외활동으로는 (사)한국코칭능력개발원 원장, (주)인터내셔널스포츠그룹 CEO, (사)KBO 야구발전위원, 독립야구단 연천미라클 구단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연수원 원장을 맡고 있다.